의문이 응원으로 바뀌는 순간

견장일기/

서 준 석
육군부사관학교 양성4교육대 대위

"위국헌신! 군인본분! 우리가 강해야! 육군이 강하다!"

최근 부사관 양성 23-4기 11중대 후보생들이 12주간의 혹독한 교육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랑스러운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부사관학교 양성중대장으로 임무 수행하며 벌써 3번째 교육하는 기수지만 매번 입교식 때의 후보생들을 보면 '과연 12주의 교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특히 이번 23-4기 후보생들은 입교 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파기 선언 등 한반도에서 긴장된 상황들이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중대장으로서 후보생들에게 어떤 안보관을 교육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필요한 교육자료를 찾아 수시로 정신전력교육을 진행했기에 더욱 특별한 기수로 기억된다.

더불어 나는 이번 기수를 교육하며 후보생들의 뜨거운 단결력과 성장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입교 초 후보생들은 체력 수준이 저조해 1차 체력 측정 결과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후보생들도 많았다. 하지만 꾸준한 체력단련으로 전 인원이 임관종합평가에 합격하게 됐다. 특히, 오르막길 뜀걸음을 할 때 중대장 후보생은 동기들에게 힘을 북돋기 위해 목이 터져라 "11중대 파이팅!"을 외쳤고 뒤처지는 인원이 있을 때는 "000 후보생! 함께 가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독려했다.

후보생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중대장으로서 한 후보생이 다른 동기생에게 한 잘못된 언행을 지도한 이후 지도를 받은 후보생이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그 후보생은 나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후보생이 쓴 편지에는 나에게 지도받은 후 스스로 반성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평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익숙치 않았던 후보생임을 알기에 진심을 담아 쓴 편지가 무척 고마웠다. 그 후보생을 통해 입교 당시 미숙하게만 보였던 다른 후보생들도 자신만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차근차근 계단 올라가듯 올바른 간부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입교 초 긴장한 얼굴과 눈빛, 어색한 행동이 만연했던 195명의 후보생이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늠름하게 임관식을 마쳤다. 앞으로 각자의 부대에서 처음 겪는 일이 많으므로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12주간 부사관 양성 교육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시행착오들을 이겨내고 또다시 성장할 것이다. 임관하는 하사들은 경험이 부족할 뿐 올바른 인성과 리더십,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생했던 11중대 후보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임관하는 23-4기 하사들의 앞으로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관계 맺기

조명탄/

안 상 윤
자유기고가·전 SBS 논설위원

광막한 벌판에 혼자 버려졌다고 상상해 보자. 사방을 둘러봐도 수평만 있을 뿐 수직은 없다. 견디기 어려운 고독이 엄습해 올 것이다. 그런데 시선이 닿을만한 거리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치자. 그 나무로 인해 내 삶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나는 틈만 나면 그 나무를 찾아가 곁에 머물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잎새와 가지를 지켜볼 것이고 얘기도 건넬 것이다. 나무가 자라면 그 그늘 아래서 쉴 것이다. 나무를 하나 더 심으면 나의 관심은 둘로 나누어지고 나는 조금 더 바빠질 것이다.

숲을 이룰 만큼 나무를 심는다면 나는 외로움을 잊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 숲속에 나의 새 공간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 숲에서 대상을 응시하며 관찰해 나가는 재미를 맛볼 것이다. 시내와 풀과 꽃과 나비와 새들이 생겨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마침내 나는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고픈 의욕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상과의 관계맺음 덕에 나는 나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며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낳으며 가족을 구성한다. 그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적 교류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교류는 이웃, 친구, 조직 구성원, 마을 사람, 국민, 다른 나라 사람 순으로 넓어진다. 교류를 맺으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신도 상대에게서 영향을 받게 된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와 여우의 사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이런 교류에 있어 으뜸 덕목은 온기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게 마련인 까닭이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껴안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온기 있는 관계 만들기'가 시민과 시민사회 형성의 기반이다.

어느 겨울엔가 라디오에서 한 패널이 이런 사연을 소개했다. 버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였다.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올라타더니 미안한 표정으로 "조금 가서 내리니 그냥 좀 태워달라"라고 호소했고 기사는 "안 된다"며 요금을 내라고 종용했다. 호소와 종용이 몇 차례 거듭되자 한 여중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그러지 마세요. 돈이 없다잖아요. 제가 대신 낼게요"라며 만 원짜리 지폐를 요금함에 넣었다. 소녀는 그러면서 덧붙였다. "거스름돈은 사정이 어려운 다른 할아버지들의 몫으로 쓰세요." 기사는 의외의 상황에 말을 잃었고 노인은 궁지를 벗어나게 돼 고마운 표정을 지었으며 동석했던 패널은 부끄러워졌다. 소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50대의 이 패널은 망설이다 버스에서 내리며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소녀에게 찔러주었다.

이 에피소드 속의 기사와 노인 그리고 다른 승객들은 한 번쯤은 목격하게 되는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시한다. 소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긍정의 아이콘이 된다. 모두가 어렵게 여기는 시험 문제를 쉽게 풀어버리는 능력을 보였다. 소녀의 마음 씀에 부끄러움을 느낀 패널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양식과 선의를 대변한다. 우리 모두는 힘겨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런 소녀와 패널이 있어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게 만든다. '더 나은 공동체 만들기'라는 희망.

원유유출 사고 현장 속으로… '태안의 기적' 일군 땀방울

History in 국방일보/

<2007년 12월 12일 자>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발생한 이 사고는 서해안 해양 생태계의 대재앙으로 이어졌는데요. 무려 1만2000여 kL의 원유가 유출되면서 청정 해역은 검은 기름띠로 가득차고, 해양 생물이 대량 폐사해 어민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육·해·공군 부대 장병들이 방제작업 지원에 돌입하면서 '검은 바다'를 살리기 위한 민·관·군·경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국방일보 역시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2007년 12월 12일 자 3면을 통해 이석종 기자가 '해군 원유유출 방제지원 현장을 가다'란 르포 기사로 그 현장을 생생히 보도했는데요. 현장을 찾은 이 기자는 "태안반도 끝에서 서쪽으로 4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은 마치 기름으로 바다를 한 꺼풀 코팅해 놓은 듯 온통 검은 물결만이 가득했다"며 "시커먼 기름 바다에서 풍기는 냄새는 금세 두통을 느끼게 했다"고 참담한 상황을 전합니다.

특히 5일째 방제작업 중인 우리 해군 장병들의 눈물겨운 청정 서해 복구 노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는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는 함정들 중 가장 눈에 띄는 함정은 평택함이었다. 함정에 달린 분사기를 이용해 유처리제를 바닷물과 섞어 기름띠가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평택함의 방제작업"이라며 "거대한 함정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내는 유처리제는 뭉쳐있는 기름덩어리를 분산시켜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 작용을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참수리급 고속정들에서는 푸른 방제복을 갖춰입은 승조원들이 긴 줄에 유흡착포 5장씩을 엮어 바다로 던졌다. 바다에 떨어진 흰색의 흡착포는 금세 시커먼 기름을 빨아들여 검게 변했고, 승조원들은 이 흡착포를 한곳에 모으는 것을 반복했다"며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의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절을 쉬지 않고 제거

"마지막 한방울까지… 청정서해 지킨다"

2007년 12월 12일 자 국방일보.

작업을 펼치자 주변 바다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진동하던 기름냄새도 크게 줄었고 무엇보다 기름으로 코팅된 듯했던 바다는 본래 빛을 서서히 찾아가기 시작했다"며 헌신적인 장병들에게 감사를, 실의에 빠진 모든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전합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기름띠로 뒤덮여 절망감을 안겼던 태안 일대의 검은 바다는 '청정 바다'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같은 '태안의 기적' 뒤에는 우리 군 장병들의 값진 땀방울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노성수 기자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채일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군)947-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군)947-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